

사회

영암지역 고교 백일해 집단 발생

인접 중학교서도 수십명 유사증세 비상

퇴학된 것으로 알려진 백일해가 영암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발생하고, 인접한 중학교에서 수십명의 학생이 유사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에 이상이 걸렸다.

전남교육청은 영암 삼호고등학교에서 여교사 1명을 포함 83명이 백일해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백일해 증세가 절정을 부릴 때인 지난 10일 전후로 전교생 279명 가운데 211명이 증세를 보였다.

이 학교와 인접한 삼호중학교에서도 이날 현재 1학년 31명, 2학년 25명, 3학년 15명 등 모두 71명이 백일해 증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당국은

중고생 형제·자매 등이 많이 자연스럽게 병원체가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희 기린소아과 원장은 "반드시 영유아 및 취학기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 등 보호자들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제회총기자 chae@kwangju.co.kr】

▲백일해=보르데텔라라는 균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흠' 하는 소리, 발작,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대개 14일 이상의 기침 양상을 보인다. 청소년과 성인에게는 생명을 위협이 되지 않지만 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아 1세 미만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



아기부처 묵욕 '관불' 의식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인 2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대웅전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서 신도들이 아기부처를 묵욕시키는 관불의식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따로따로’ 광주불교계

‘부처님 오신날’ 제등행렬·봉축행사 각각 개최

사암연합회 회장 선거 갈등 여전

‘따로따로 제등행렬’ 별도의 봉축 행사. 광주불교계의 파행이 심상치 않다.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날(28일)을 맞아 지난 20일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주관으로 광주공원 등에서 연등법회와 제등행진이 열리는데 이어 조계종이 26~28일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 일대에서 대규모 봉축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행사가 분리 진행되는 조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광주불교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상황은 2010년 불교사암연합회 회장선거와 관련해 갈등해은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향 스님)와 조계종 광주불교연대(대표 현지 스님)의 불화가 원인이다.

지역 최대 불교연합체인 광주 불교사암연합회 회장직을 놓고 그동안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온 결과라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지역 불교단체 활

동가들의 모임인 광주·전남불교 NGO연대가 분란을 일으킨 장본인들의 참회와 화합을 요청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어 광주불교계의 내분이 여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주·전남불교 NGO연대 운영위원회는 최근 “조계종 일부 스님들의 도박사건으로 불교계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며 “종교가 세상 각정을 해야 하는 데 세상이 오히려 종교를 격정해야 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화합을 당부했다.

이와 “화합의 승가공동체를 구현해야 할 광주불교는 지금 불신과 반목에 갈기갈기 갈라져 있다”며 “갈등에 처한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일부 스님간 반목의 골은 깊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스님들의 도박사건 등으로 불교계의 도덕적 위상이 실추된 시

점에서 광주불교계의 반목까지 겹쳐 더 큰 낙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관계자는 “부처님오신날 이후 곧 반목을 해소하고 공동체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모임을 열 계획”이라며 “이웃과 세상에 보탬이 되고, 희망이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연합이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광주 불교계 한 관계자도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가져올 해안이 나올 것”이라고 희망했다.

한편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 1979년 4월에 창립, 2006년 11월 사단법인설립인가를 받은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연합단체로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을 비롯한 불교 종단 160여 개 사찰이 회원사찰로 등록돼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을 민사사건 전자소송 도입후

‘옛가락 재판’ 크게 줄었다

재판절차 대폭 간소화
소요기간도 절반 단축

올해부터 전자소송이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소송에 도입된 뒤 재판절차가 간소화되면서 1심 선고일까지 소요기간이 일반소송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 접수 후 1심 선고까지 1년 가까이 걸리던 재판 당사자들의 마찰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담당 재판이 누락돼 법관들의 피로가 쌓이는 등의 종이소송의 부작용도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다.

2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달 4일부터 지난 9일까지 민사소송(선고사건 기준) 소장 접수 후 1심과 항소심 선고 기간을 분석한 결과 종이소송의 경우 1심까지 평균 306.4일이 걸린 반면 전자소송은 151.8일이 소요됐다.

또 종이소송은 507.3일만에 항소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지만 전자소송은 1년이 채 안 되는 302.5일 만에 항소심 선고를 내려졌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두 달간 전자소송 처리기간(접수~종국)을 조사한 결과 광주지법의 단독 재판부 경

우 107.6일, 합의 재판부는 117.6일이 소요돼 전국지법 평균 133.2일, 146.2일보다 한 달 가까이 짧았다.

소송기간이 줄어들면서 원고·피고 등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이 나 마찰 등이 감소하고, 재판부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재판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광주지법의 설명이다.

똑같은 사안이라도 종이소송과 전자소송의 처리기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와 피해자 측 보험사에 청구한 구상금 관련 재판의 경우 서류소송은 1심 선고까지 230.8일, 항소심 선고까지 421.3일을 기다려야 했지만 전자소송은 각각 173일과 318일 만에 판결문을 볼 수 있었다.

광주지법 제7민사부 최인규 부장판사는 “전자소송이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민사소송의 ‘옛가락 재판’을 줄이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만 전자소송의 장점을 알고 있는 금융기관 등이 주로 혜택을 받는 지적이 있어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0분 / 해질 19시 40분 / 달뜨기 12시 45분 / 달지기 00시 39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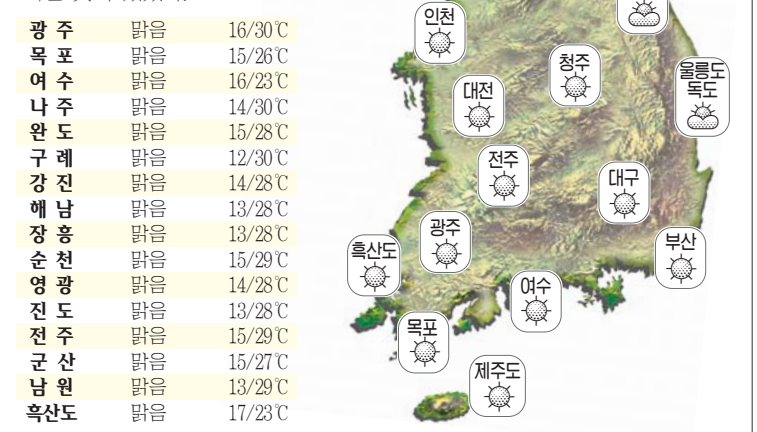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temperature, wind, and precipitation. Includes a section for '주말 날씨' (Weekend Weather) with a 4-day forecast.

31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 비

석탄산일 연휴 마지막날인 28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0.2도까지 올라가 물이 가장 높았다. 기상청은 당분간 30도 안팎의 날씨가 이어진다

광주·전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정부가 적극 나서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광주 지역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정부와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Large advertisement for '자유투어' (JAYU 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various countries like China, USA, Europe, and Japan. Includ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oter section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예/약/상/담, 북구점, 상무점, 시청점, 동구점, 하남점, 목포점, 광양점, 전주점.